

제약의학 교육

김 철 준

한국MSD

제약의학은 ‘약품 또는 백신의 발견(discovery),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근거중심의 마케팅(evidence-based marketing), 그리고 안전한 사용(safe use) 등과 관련된 의학의 한 전문분야’ 라고 정의한다. 이는 ‘환자 및 사회의 건강의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주도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제약의학이 전문분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의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입문 자격(entry requirement)
2. 교육 및 훈련의 내용, 즉 제약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기술훈련의 내용
3. 지식 및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학회
4. 조직화된 지속교육 및 직무개발 프로그램

이러한 관점에서 제약의학이 전문분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제약의학이란 이름으로 졸업 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위스나 영국, 멕시코 등은 제약의학이 전문분야로 공인되어 있다. 유럽의 여타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의 경우 아직 전문분야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몇몇 대학에 fellowship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분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들은 국가의 제약의학회가 대학과 협동하여 개설하기도 하고, 대학 등이 단독으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국제제약의학연맹(IFAPP)은 이들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상호 인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common core syllabus)을 개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tion 1. Discovery of New Medicines
- Section 2. Pharmaceutical Development
- Section 3. Toxicity Testing
- Section 4. Legal and Ethical Issues
- Section 5. Development of Medicines
- Section 6. Clinical Trials
- Section 7. Statistics and Data Management
- Section 8. Safety of Medicines

Section 9. Regulatory Affairs

Section 10. Information, Promotion and Education

Section 11. Economics of Healthcare

Section 12. Medical Department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50명에 가까운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제약의학회가 창립되어 제약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제약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제약의학 학위 과정 및 연수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약의학 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